

【연구논문】

# 융 분석심리학의 여러 개념을 통해 살펴 본 소설 『새파란 눈』 등장인물들의 자기실현 양상

박지향

(서울대)

## 1. 서론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 『새파란 눈』(*the Bluest Eye*) (1970)은 백인 공동체는 물론 흑인 공동체 내에서도 온전히 자기로서 생존하지 못하고 정신분열 현상을 보이는 피콜라(Pecola)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보통 비극으로 읽힌다. 한편, 모리슨은 한 인터뷰에서 소설 속 인물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하였고 그 중 피콜라가 자신이 잃어버린 자기의 일부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녀는 피콜라가 모든 이들에게서 사라진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자신이 예전에는 좋아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과거에 세상의 정의나 도덕에 관심을 쏟았던 순수했던 모습”, “지구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잘 알 수 없었을 때 글을 통해 ‘그 사람’을 되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나왔다. 나는 피콜라였고 클로디아였다. 나는

모두였다. [...] 나는 나 자신과 세상을 재구명했다. [...] 그러나 그 죽은 소녀-그 소녀는 내 마음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람. 그 이름이 아닌 그 사람. [...] 나는 지구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했다. 나는 내 친구들을 좋아했는데 그 후는 아니었다. 내가 내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 곳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And all of those people were me. I was Pecola, Claudia. . . . I was everybody. . . . I reclaimed myself and the world. . . . But the dead girl-and not only was that girl dead in my mind, I thought she was dead in everybody's mind, aside from my family and my father and my mother-that person didn't exist anywhere. That person. Not the name, but the person. . . . I remembered being a person who did belong on this earth. I used to love my company and then I didn't. And I realized the reason I didn't like my company was because there was nobody there to like. (Taylor-Guthrie 198)

이같이 작가에게는 내면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인물이 대부분의 독자에게는 외부의 비극적인 인물로 읽히는 것은 피콜라에 대한 심리적 거리 면에서 작가와 독자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이 차이는 작가와 독자 간에 생기는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독자가 주요 인물의 삶과 심정에 더욱 공감하면서 읽는 것이 문학 작품을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이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나를 의미가 있겠다. 비록 이 차이의 원인을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리슨이 피콜라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를 진실로 가정한다면, 피콜라의 삶이 보여주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한 개인의 삶이 비극인지 아닌지를 누군가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콜라처럼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미워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아이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

자에게 강간당하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며 길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흑인 여자 아이의 이야기가 비극이라고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콜라 삶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국내외 논문들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들 논문의 주요 논지는 성별, 인종, 계급 등의 여러 요인에 따른 억압구조 속에서 개인이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논의의 과정에서 대개 피콜라와 클로디아(Claudia)의 삶이 대조되어 설명되어 왔고, 피콜라의 정체성 확립 실패와는 달리 클로디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흑인 공동체의 역할이 거론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피콜라의 삶을 비극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서 타당한 논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의 한계는, 피콜라의 삶이 비극이라고 전제되었는데 과연 이 전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정체성 형성 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의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실패’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이다.

반면,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그 과정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 논문도 소수 존재한다. 사무엘즈와 허드슨 워즈(Samuels & Hudson-Weems)는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1990)에서 모리슨의 작품인 『새파란 눈』, 『술라』(Sula), 『솔로몬의 노래』(The Song of Solomon), 『타르 베이비』(Tar Baby), 『빌러비드』(Beloved)를 등장인물들의 자기 창조(self-creation)를 향한 노력의 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들은 피콜라의 삶이 비극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모리슨이 관습적 사회 구조 속으로 스며드는 인물보다는 실존적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에 더 관심이 많음을 언급하며 피콜라의 삶이 객체의 상태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생긴 실패로 설명하였다(10). 이는 모리슨이 『새파란 눈』의 서문

에서 “자아를 굴복하여 강한 구조 속으로 스며든 사람, 그 이상 성장한 사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붕괴한 사람”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작품과 작가의 집필 의도의 연계 면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실패의 의미를 논의한 것은 인물 피콜라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남승수가 『새파란 눈』에 나타난 웃음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고유문화인 ‘펑크’(funk)<sup>1)</sup>와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피콜라의 비극이 이러한 ‘펑크’를 수치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92). 비록 이 논문에서도 피콜라의 삶이 비극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가 작품 전체에서 웃음이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고찰한 방법은 피콜라 이외의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하류층의 창녀인 마지노라인(Maginot Line), 폴란드(Poland), 차이나(China)가 웃음의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물들로 그려진다는 그의 해석은 우리가 작품 속 인물들의 삶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져볼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피콜라의 삶이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사무엘스와 허드슨 워즈가 인물의 삶을 ‘자기 창조를 향한 노력’이라는 면에서 고찰한 것에 착안하여, 각 인물들의 자기실현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한 것이 되겠다. 그리고 필자는 자기실현이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리학의 여러 논의 중 일반적으로 ‘자기’(self)의

1) 수잔 윌리스(Susan Willis)는 「펑크의 출현」(“Eruptions of Funk”)에서 펑크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으로 모리슨의 글쓰기 목적은 이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고유문화를 유지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35). 모리슨은 대다수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이 펑크를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펑크의 속성으로 정열, 본성, 인간감정, 웃음, 언성과 같은 내면적 특성과 두꺼운 입술, 곱슬머리, 검은 피부 등을 들었다(83).

개념을 잘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피콜라와 그녀의 가족

융(Jung)은 무의식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그는 페르소나(persona)가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거짓 자기의 이미지로서 흔히 성별이나 인종, 직업, 계층 등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자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독특하면서도 온전한 자기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식하는 마음인 자아(ego)가 집단적 특질인 페르소나적 자아를 거두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sup>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중년 이전에는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페르소나를 키우는데 집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기를 찾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는 이를 변형(transformation)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이를 비유적으로 첫 번째 삶(first circle)을 살던 애벌레가 거짓 자아의 죽음(molting) 과정인 번데기 시절을 거쳐 두 번째 삶(second circle)인 나비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sup>3)</sup>

한편, 그에 따르면 자기의 출현 과정에서 자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부로 내가 지각하고 있는 마음이다. 이는 외부 환경과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지각하여 전체정신인 자기를 조화롭게 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아는 개인이 갓난아기일 때에는 외부 환경과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단순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성장 과정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자아 콤플렉스(complex)를 형성한다. 한편, 사춘기 이전의 자아는 본인의 자아라기보다는 부모의 자아 콤플렉스

2)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파주: 한길사, 2002).

3) Murray Stein, *Transformation: Emergence of the Self*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1998), Chapter 1.

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에서 부모의 자아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sup>4)</sup> 그러므로 피콜라의 자기실현 양상에 대한 논의는 그녀의 부모인 출리(Cholly)와 폴린(Pauline)의 자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서술자는 출리의 여리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때문에 그를 추함 그 자체로 설명하였다(38). 그의 여리고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은 크게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는 우선 자신의 아내를 구타하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을 당시 갑자기 나타난 백인 남성들이 자신들에게 수치를 주자 이들에 대한 억눌린 분노를 상대 여성에게 투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는 설거지 하는 굵은 등의 딸인 피콜라가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롭고 즉흥적이기까지 한 그는 결국 자기 아이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감정을 실행에 옮기고 만다(161). 물론, 서술자는 이렇듯 출리가 추한 모습으로 자기실현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 그의 가정이 일찍이 붕괴되었고 그가 나중에 찾아간 아버지로부터 또 다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독자가 어느 정도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출리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추한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힘들다.

폴린의 자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추함을 연기하는 배우로서의 자아와 일터에서의 “이상적 하녀”(126)로서의 자아, “올바른 크리스천 여성”(42)으로서의 자아이다. 가정 내의 부부 싸움은 폴린의 연기로부터 시작되는데 본 작품에서는 이것이 “즉흥성이 부족하고 미리 계산된 것”(40)으로 설명된다. 폴린의 연기는 그녀가 침대에서 시끄럽게 빠져나오거나 부엌에서 소음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밤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누워있는 남편 출리에게 다가가 석탄이 필요하다며 그의 발을 찌르는 행위로 묘사된다

---

4)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39). 그녀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남편 출리를 계속해서 깨우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싸움을) 시도하도록 하지 말라.”(41)며 부부싸움이 곧 시작될 것을 그에게 경고한다. 서술자는 이러한 폴린의 행동을 “그녀가 진정한 자기(her true self)라고 믿고 있는 것”(41)을 아침 마다 싸움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로서 그녀에게서 아침의 싸움을 빼앗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하였다(42). 여기에서 그녀가 믿고 있는 진정한 자기는 작품의 문맥 상 추한 모습으로서의 자기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이상적 하녀로서의 그녀의 자아는 주인집 아이가 자신의 딸을 보고 누구냐고 묻자, 이에 “아무도 아니야”(109)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그녀의 가정에서의 추한 모습으로의 자아와 이상적 하녀로서의 자아가 서로 통합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녀의 올바른 크리스천 여성으로서의 자아는 가정에서 출리를 “약한 사람”(127)으로 내몰고 “심판자”(42)로서의 기능을 하며 그 종교적 가치를 이용한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피콜라의 자아는 서술자에 의해 추함이라는 가면 뒤로 숨어버리는 것으로 설명된다(39). 이 은유적 표현의 명시적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에서 논의되었던 첫 번째 삶에서의 주된 성장 과제가 페르소나를 학습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본문에서 페르소나의 은유적 표현인 ‘가면’이라는 낱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말은 피콜라가 가정과 사회에서 주어진 페르소나를 학습하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피콜라의 자아 학습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그녀의 오빠와 피콜라가 부부싸움 장면에서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들은 둘 다 브리드러브 부인(Mrs. Breedloves)이 자신이 직접 석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이 모든 그녀의 행동이 싸움을 의도하는 것임을 감지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에 새미는 이미 잠에서 깨어났지만 잠자는 척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에 피콜라는 숨을 참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41). 이러한 새미의 전략적 행동은 새미가 부부싸움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중재하거나 동생을 돌보는 행동을 하기 보다는 잠자는 척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자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새미의 자아는, 그가 매일 반복되는 부부싸움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출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이런 추함이라는 자아를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할 정도의 사리분별력을 갖추지는 못한 듯 보인다. 그 결과 새미는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추함을 이용하고 그의 추함에 매혹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한다(39).

새미의 자아가 이렇듯 추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반면에 피콜라의 자아는 여자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인내를 선택한다. 부부싸움의 상황에서 그녀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데, 그녀는 마치 남을 죽이거나 본인이 죽고 싶을 정도의 욕망을 느낀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 그녀는 “브리드러브 부인,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겨우 내뱉는 수준으로 반응할 뿐이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는 남을 벌주라고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없애지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몸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이미지를 그리며 환상 속에서 자신을 실현한다. 피콜라는 이렇듯 자신이 사라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그녀의 눈이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추함’이라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자신이 파란 눈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었다(43).

피콜라가 이러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에서도 추함으로 남아있지 않고 싶어 한다는 말은 그녀가 그만큼이나 아름다운 자기로 살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피콜라의 어머니도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점과 이들 가족의 독특함이 ‘추함’이라는 서술자의 설명-이 또한 이들 가족의 특성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양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공하는 서술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콜라가 원하는 ‘자기’ 이미지가 아름다운 여성 혹은 여자 아이일 것으로 해석된다. 폴린의 경우에는 그녀가 주인집 부엌의 여러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백인 여자 아이를 돌보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자기를 제한된 공간에서라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제한적 자기실현을 위해 배운 페르소나는 추함으로, 이는 그녀가 가정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인 출리에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피콜라는 그녀의 어머니나 오빠가 하듯 추함을 학습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그녀가 집에서 추함을 발휘할 여건이 못 되는 가장 약한 존재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그녀가 추함을 학습하기에는 너무나도 간절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 3. 피콜라와 클로디아 및 그 외 인물들

이러한 피콜라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클로디아이다. 클로디아가 이해한 피콜라의 마음이란 그녀가 다른 어른들처럼 자신을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콜라의 이러한 점 때문에 클로디아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작품에서 말한다. 피콜라가 자신의 집에 작은 종이 가방도 하나 없는 빈털터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디아는 그런 그녀를 멀리하기보다는 광대 짓을 하여 피콜라를 웃겨 주기도 하고 그녀에게 크래커도 나누어 준다(19). 클로디아의 어머니가 우유를 많이 마셨다며 피콜라를 나무랄 때에도 그녀는 자신의 친구를 낮 뜨겁게 만드는 어머니의 욕설을 부끄럽게 여긴다. 또한 클로디아는 피콜라가 초경을 하여 당황해 할 때 그녀의 마음을 살피며 옆에 있어 준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피콜라를 물에 빠뜨려 죽이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콜라의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도 클로디아는 함께 생각해 보는 태도를 보인다(28).

누가 봐도 불쌍하고 추한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 여자 아이인 피콜라가 클로디아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그냥’ 보이는 이유를 우리는 픽(Fick)이 언급한 ‘최상의 시각’(excellence of vision)을 클로디아가 가진 것으로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12). 그녀가 최상의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녀가 토사물을 날계란처럼 보이는 신비로운 것으로 관찰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이 클로디아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들에게 마술을 선보일 수 있는 미스터 헨리(Mr. Henry)를 처음부터 “우리 하숙 집 사람”(12)으로 여기며 그를 좋아하는 장면이나 그녀가 벌거벗은 아버지(naked father)를 부끄러운 존재로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목(71), 또한 그녀가 다른 어른들과 같은 찌든 웃음이 없는 마지노 라인(Maginot Line)의 눈에서 폭포를 본다(102)는 서술을 통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클로디아가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들의 공통점으로는 ‘자신처럼 어리고 약한 존재를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미스터 헨리가 지니고 있는 아이들과의 공감 능력, 벌거벗은 아버지가 상징하는 검은 피부와 그 피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마지노 라인이 지닌 환한 웃음 등은 앞에서 논의한 ‘핑크’의 속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노 라인이나 차이나, 폴란드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핑크를 지닌 이들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야 하는 한계를 보인다. 작품 속에서 서술자는 그녀들이 적극적으로 창녀의 옷을 입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어찌 보면 이들이 웃음이 많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미스터 헨리는 성을 즐길 수 있는 핑크를 지니고 가끔 창녀들을 하숙집으로 불러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는 성을 즐기지 못하는 인

물인 제랄딘(Geraldine)의 모습과는 대조된다. 하지만 그는 사회 ‘안’의 소녀인 프리다(Freida)를 성적으로 탐하다가 결국 사회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는 개인이 성을 즐기는 것은 필요하나 그것이 사회의 도덕규범 내에서 행해져야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클로디아가 좋아하는 인물인 피콜라도 결국에는 ‘정신이상자’라는 사회의 부정적 페르소나를 지니고 살게 된다. 이처럼 클로디아가 최상의 시각으로 보기에 여린 사람을 지배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웃음과 감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창녀’, ‘범죄자’, ‘정신이상자’라는 가면을 부여 받고 살게 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클로디아가 처음에 하는 선택은 피콜라를 지켜주지는 것이었다. 겔로(Gehlot & Gehlot)는 『새파란 눈』의 아이들은 서로에게 철학자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신 그들 스스로가 민감성과 지각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그는 설명하였다(379). 피콜라는 특히 세 아이 중에 가장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린 감수성을 보인다. 그녀는 부부싸움의 상황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길가의 혼한 민들레를 예쁘게 보며 야코보우스키(Mr. Yacobowski)가 내뿜는 익숙한 진공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피콜라의 감수성은 민감하고 여리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기도 쉽다. 이러한 피콜라의 감수성은 대부분 두려움과 수치로만 드러나지만 클로디아와 프리다를 통해 대신 표현되기도 한다. 초경에 대해 두려움만 나타내는 피콜라를 대신해 프리다는 그녀가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로 표현해 준다(104). 또한 학교 남자아이들의 놀림에 수치스러움만 느끼는 피콜라를 대신해 클로디아는 “닥쳐. 이 멍청아.”(66)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곧 클로디아와 피콜라는 인생의 다른 길을 걷는다. 균열은 마지노 라인에 대한 클로디아와 피콜라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클로디아에게는 마지노 라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피콜라

에게는 마리(Marie)로 불리고, 클로디아는 마지노 라인이 무섭다고 말하지만 피콜라는 마리가 매우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피콜라는 마리가 자신에게 예쁜 옷과 신발도 사주고 카니발에도 데려가 주었다고 한다(106). 이러한 클로디아의 반응은 창녀들이 마을에서 금지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클로디아가 최상의 시각을 지닌 본래의 자기를 조금씩 지워가는 대신에 사회적 페르소나를 익히는 첫 번째 삶의 성장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가 페르소나를 익히는 모습은 작품의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작품에서 피콜라가 모린 필은 아름답다고 하고 자신들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그것”(the Thing)(74)이 있다는 것을 클로디아가 지각해 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유로 클로디아는 모린 필이 짜증나면서도 막상 모린이 집에 같이 가자고 하니 거절하지 못한다(63). 그리고 한 때는 지켜주고 싶었던 피콜라가 정신이상자라는 마을에서 부여받은 이름으로 거리를 배회하게 되자 클로디아는 그녀 근처에 다시는 가지 못하게 된다(204).

한편, 클로디아가 첫 번째 성장 과정의 과제를 잘 학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그녀의 가족의 역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클로디아의 가족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만을 학습하도록 클로디아 주변에 울타리를 쳐 주는 역할을 한다. 프리다는 웃음을 지닌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접촉할 것이 금지된 여자인 마지노 라인에게 “아니오, 부인. 우리는 허락받지 않았어요.”(104)라고 말하며 동생과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용기를 지녔다. 또한, 클로디아의 아버지는 미스터 헨리가 자녀들에게 웃음을 줄 때에는 그에게 미소로 답하지만(16), 한편 미스터 헨리가 프리다의 가슴을 만졌을 때에 그는 헨리에게 총을 겨누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한다(100).

하지만 이러한 클로디아의 성장에는 자기를 어느 정도 잃어버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핑크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그녀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피부, 웃음, 순수함 등에 대

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작품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클로디아가 접시꽃처럼 날씬하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욕은 더더욱 하지 않으며 남자친구는 없어 보이지만 결혼은 하는 여자들처럼 살며 그 속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83), 깨끗함의 가치와 셜리 템플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하는 것(23) 등으로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이 깨끗함의 가치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자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발전(improvement)이 없는 조정(adjustment)”(23)일 뿐이라는 서술자의 설명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클로디아의 이러한 조정을 인간애(humanity)에 기초하기 보다는 부끄러움(shame)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한 오커드(Awkward)의 주장과 관련지어 볼 때, 개인이 사회적 자아를 학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유 특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때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오로지 타인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자기의 인간애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61). 그리고 여기서 인간애란 클로디아가 처음에 피콜라를 지켜주었던 자신보다 어린 생명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작품에는 사회적 페르소나대로 첫 번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어른들이 등장한다. 폴린은 북부로 이주 후 영화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곱슬머리와 말투를 포기하고는 레이디스 서클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이상적인 하녀가 된다(118). 제랄딘은 유색인종(colored people)과 검둥이(nigger)의 차이점을 아들인 주니어(Junior)에게 가르치고 그의 곱슬머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의 머리를 짧게 자른다. 이들과처럼 온전히 자기로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에게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억제된 자기의 고유 특성을 증오로 표현한다. 주니어는 고양이의 고통을 즐기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자갈과 모래를 던진다(86). 소우프헤드 처치(Soaphead Church)는 염세주의적 성격을 키우고 이러한 성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업으

로 숨긴다(164). 결국에 그는 염세주의로 무장한 자신의 오만함으로 피콜라가 정신이상자가 되는데 기여한다(173).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애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아를 학습하기보다는 수치심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아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수치심에 기초한 사회적 자아 학습이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지적 받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제랄딘이 자기 아들의 머리를 강박적으로 민다든지 머리가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며 하는 성행위, 소우프헤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업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의 행동이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그 결과 이들의 페르소나만 확장되어 이들의 진짜 자기는 실현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약한 존재를 헤치는 방식으로만 자신들의 자아를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 4. ‘피콜라’가 상징하는 바와 클로디아의 참자기 발견

앞서 우리는 클로디아와 다른 인물들의 페르소나 학습과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다른 몇몇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페르소나‘만’을 학습하는 것의 위험성을 클로디아가 보여준 여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학습하는 것과 대조하여 살펴보았다. 작품에서 클로디아가 지키고자한 여린 생명은 바로 피콜라이다. 한편, 모리슨이 앞서 인터뷰에서 피콜라를 우리에게서 사라진 ‘그 사람’이라고 한 점을 생각해보면, 피콜라는 비단 한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속성’으로 상징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콜라가 상징하는 바는 모리슨의 인터뷰 내용과 픽의 주장을 근거로 ‘순수함’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 픽은 순수함만을 지닌 피콜라가 사회를 보기도 전에 자기혐오와 스스로

싸워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치게 된다. 이러한 피콜라의 비극적 삶의 결말은 차라리 피콜라가 추함을 적극적으로 익혀 창녀들이 한 것처럼 ‘유태인을 꼬여 들이고 그의 주머니에 든 것을 모두 털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도 길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한다(56). 이렇듯 순수함으로 상징되는 그녀는 그녀의 오빠인 새미처럼 아버지인 출리에게 담비거나 기출 청소년 가면도 못 써보고 창녀네 집에 놀러가 겁도 없이 어떻게 하면 남자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본다(43).<sup>5)</sup>

한편, 본 소설이 어른이 된 클로디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 중 피콜라에 관한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서 사라진 피콜라로 상징되는 순수함이 글을 통해 재현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클로디아의 회상 내용에 죄책감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는데, “출리 브리드러브는 죽었고 우리의 순수함도 역시 죽었다”(6), “피콜라의 근처에는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았다”(204)라는 고백이 그러하다. 이는 피콜라를 자신이 ‘타자화’한 것에 대한 클로디아의 죄책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말과 글을 통한 클로디아의 고백은 그녀가 ‘타자화’했던 존재를 다시 불러 온 것이기도 하다. 즉, 어른이 된 클로디아는 자기의 가장 순수하고 여린 모습을 피콜라를 회상함으로써 다시 찾아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모습은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비록 클로디아가 어렸을 때에는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자아를 학습하며 일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녀에게 사회에서 피콜라와 같은 순수하고 여린 존재를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리슨이 인터뷰에서 말한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도 연관되는 해석으로 작품 속에서는 어린 클로디아가 피콜라를 지키기 위해 했던 나름의 행동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내가 어디서

---

5) 피콜라 성장의 실패가 오로지 타인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피콜라가 자신의 자아실현에 책임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Samuels & Clenora 15).

나체인 남자를 보겠니?”라며 자기 부정을 하는 피콜라의 등을 치켜세워 주고 싶어 하였고(71), “나는 예뻐. 너희는 미워.”(I’m cute. You ugly.) (69) 가치를 선생님들이나 다른 교우들처럼 수용하는 대신 모린 필을 “머랭 파이”(Meringue Pie)(63)라고 부르는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녀는 어른들이나 다른 소녀들이 아름답다고 부르는 백인 인형을 분해 하여 도대체 그 ‘아’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20).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던 순수했던 자기의 모습을 찾은 클로디아는 이제 참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작품에서는 그것이 “피부에 인락함을 느끼고 새로운 감각을 즐기며 때를 존경하던 모습”으로 클로디아의 회상을 통해 나타난다. 마침내 어른이 된 클로디아는 자신이 순수했던 ‘자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다시 성장 하는 것이다.<sup>6)</sup>

꾸밈과 공허 없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다. 우리는 우리의 피부에 인락함을 느꼈고, 새로운 감각을 즐겼으며, 우리의 때를 존경했으며, 상처를 어루만졌고, 이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Guileless and without vanity, we were still in love with ourselves then. We felt comfortable in our skins, enjoyed the news that our senses released to us, admired our dirt, cultivated our scars, and could not comprehend this unworthiness. (74)

한편, 이러한 클로디아의 고백은 작품 속에서 클로디아가 피콜라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작가인 모리슨 자신의 고백이기도 할 것이다. 모리슨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구석 몰려있었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 인터뷰 내용

6) 마찬가지로 모리슨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Taylor-Guthrie 120).



을 변형 과정의 고통과 바로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겠으나, “흑인 여성이여, 당신은 나의 여왕입니다.”와 같은 말이 자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모리슨의 말과 본인이 원래 시민운동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탐험하고 싶었다는 말을 통해 이 말이 그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종의 페르소나적 자아를 벗겨내고 참자기를 찾고 싶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톨스토이가 그러했듯 이러한 변형 과정이 모리슨에게도 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온 것과 ‘백인 사회의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삼십대 증반에서 오십대 사이에 변형 과정이 나타난다는 융의 의견’(Duane Schultz 156)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녀의 『새파란 눈』의 집필 의도가 바로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sup>7)</sup>

생각해 보건데 그 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구석에 몰렸다. [...]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은 나에게 관한 것이

- 
- 7) 톨스토이(Tolstoy)도 『나의 고백』(*My Confession*)에서 성장의 고통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나는 내 생명을 너무 쉽게 끝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총을 들고 사냥을 가는 일을 그만두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인생이 두려웠고 그것과 싸웠지만, 여전히 거기서 무언가를 바랐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완벽한 행복으로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 있을 때 찾아온 것이었다. 내 나이가 아직 50이 채 안 되었을 때였고, 나에게서는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으며, 아무 노력 없이도 늘어나는 커다란 땅이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내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존경 받고 있었다.

I gave up taking a rifle with me on hunting trips so as not to be tempted to end my life in such an all too easy fashion. I myself did not know what I wanted. I was afraid of life and strove against it, yet I still hoped for something from it. All this was happening to me at a time when I was surrounded on all sides by what is considered complete happiness: I was not yet fifty, I had a kind, loving and beloved wife, lovely children, and a large estate that was growing and expanding with no effort on my part. I was respected by relatives and friends far more than ever before. (Tolstoy 19)

아니었다. 그리고 “흑인 여성이여, 당신은 나의 여왕입니다.”라는 말과 같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관한 소음이 가득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 너무 혼란스러웠다. 나는 원래 시민 운동에 관심이 있었다. [...] 어떤 사람은 해내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탐험하고 싶었다.

I think that at that moment I had no choice. If I had had some choices such as the ones we are talking about, I wouldn't have done it. But I was really in a corner. . . . Whatever was going on was not about me and there were lots of noises being made about how wonderful I was-“black woman you are my queen.” I didn't believe it. . . . It was too confusing. I was interested primarily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 . . Some people made it, some didn't. And I wanted to explore it myself. (Taylor-Guthrie 198)

톨스토이가 변형 과정을 통과한 후 어떤 참가기를 지닌 인물로 재탄생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모리슨의 경우에는 참가기를 탐험하는 제 2의 삶 속으로 재탄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리슨은 클로디아를 통해 등장인물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고(xii) ‘이유와 과정’(why and how)(6)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탐험하였다. 그 결과로 알게 된 진실은 ‘피콜라와 자신의 연결 관계’(Klotman 124)이다. 작품에서는 이 연결 관계가 피콜라에 대한 흑인사회의 타자화로 나타난다. “피콜라의 추함은 우리를 아름답게 했고 그녀의 단순함은 우리를 장식해 주었으며 그녀의 죄의식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었고 그녀의 고통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었으며 그녀의 이상함이 우리를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205)는 사실이다.

## 5. 결론

모리슨에게 피콜라는 비극의 존재이면서 또한 소중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녀가 피콜라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글쓰기를 통해 ‘피콜라’를 자신 안의 ‘그 사람’인 순수함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독자인 우리도 피콜라를 비극의 존재로만 규정짓는 것에서 나아가 모리슨이 피콜라에 대해 느꼈던 것처럼 그녀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본 글의 목적이었다. 독자인 우리가 ‘피콜라’를 ‘그 사람’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피콜라를 ‘흑인’이며 ‘여성’이고 ‘아이’라고 타자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타자화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성장’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성장을 조망해 보았다. 조망 결과 『새파란 눈』의 등장인물들은 클로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가기를 실현하는데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인물들의 자기실현 면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서문의 “1941년 가을에는 어떠한 매리골드도 꽃을 피우지 못했다”(5)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매리골드가 피콜라가 예쁘게 보았던 것이고 피콜라가 상징하는 바가 순수함이라는 것, 또한 매리골드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 핀 흔한 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작품 속 인물들이 클로디아가 작품에서 말한 “새로운 감각을 즐겼고 우리의 때를 존경했으며,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습”(74)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그 해 척박한 땅의 중심에 피콜라가 있었다. 피콜라는 싹을 틔우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도 피콜라가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피콜라의 씨앗은 온전하게 성장한 클로디아의 비옥한 마음속에 떨어져 꽃을 피웠다. 그 꽃은 피콜라가 환상 속에서라도 새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클로디아의 마음속에서 글쓰기를 통해 계속 성장한다. 이처럼 피콜라의 실패는 “두려운 것”(204)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참가기 실현을 위해 추함을 학습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의 간절한 몸부림으로 아름답다.

## Works Cited

- 김종갑. 「공동체적 시선을 위하여: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 『토니 모리슨』.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9. 17-38.
- 남승숙. 「『가장 푸른 눈』에 나타난 웃음의 특성과 의미. 『영어영문학연구』 37.3 (2011): 89-108.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파주: 한길사, 2002.
- Awkward, Michael. "Roadblocks and Relatives: Critical Revision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1988): 57-68.
- Fick, T. H. "Toni Morrison's 'Allegory of the Cave': Movies, Consumption, and Platonic Realism in *The Bluest Eye*." *Journal of the M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2.1 (1989): 10-22.
- Gehlot, Lalit, and Mrs Himani Gehlot. "Identifying Major Conflicts among the Black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and Education* (2014): 378-389.
- Klotman, Phyllis R. "Dick-and-Jane and the Shirley Temple sensibility in *The bluest eye*."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School of Education, Indiana State University, 1979.
-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Vintage Books, 2007.
- Morrison, Toni, and Danille Kathleen Taylor-Guthrie.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4. 119-128, 188-217.
- Samuels, Wilfred D., and Clenora Hu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10-30.
- Schultz, Duane. *Growth psychology: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1981. Trans. Hyesung Lee.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7. 13-20, 140-169.
- Stein, Murray. *Transformation: Emergence of the Self*.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1998.
- Tolstoy, Leo. *A Confession*. Trans. Jane Kentish. London: Penguin, 2008.
- Willis, Susan. "Eruptions of funk: historicizing Toni Morrison."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School of Education, Indiana State University, 1982.

용 분석심리학의 여러 개념을 통해 살펴 본  
소설 『새파란 눈』 등장인물들의 자기실현 양상 231

- 논문 투고일자: 2015. 11. 16
- 심사 완료일자: 2015. 12. 21
- 게재 확정일자: 2015. 12. 21

Abstract

**The Discussion of Character's Self-actualization in  
the Novel *The Bluest Eye* through the Several  
Concepts of Jung's Psychoanalysis**

Jihya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Pecola's tragic life through the discussion of character's self-actualization process to explore the more positive view on her failure in *The Bluest Eye*. Different from the 'otherness' in Pecola's tragic life, the author claimed Pecola was the author herself. Moreover, she proclaimed Pecola could be represented as innocence.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characters' self-actualization phenomena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eaders to reinterpret Pecola's life not merely a tragedy but a struggle to be the true self.

The passages of the novel have been discussed mainly through the concepts of Jung's psychoanalysis theory including 'self,' 'ego,' 'persona' and 'transformation'—the movement from the first circle of life to the second circle of it. Except Claudia, most characters in the novel have failed to be the true self including Pecola. Though the failure of her life is prominent, her struggle to be the true self could be meaningful.

**Key Words**

*The Bluest Eye*, self-actualization, Jung, psychoanalysis